

“계율 받들어 행하면 가정과 인류가 행복”

참나 찾아 반야 지혜 회복하자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마야부인이 무우수나무를 잡음이며, 우레소리가 천하를 두루함이며, 태자(太子)가 주행칠보(遊行七步)하니 우담발화가 만발하였도다. 하늘과 땅을 가리킴이며, 일체 마군(魔軍)이 혼비백산(魂飛魄散)하고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유아독존(唯我獨尊)하니 천하(天下)가 태평(太平)하도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으로 환희로운 날입니다. 부처님 오심은 온 우주의 생명에게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이라는 희망을 열어주기 위함이며, 일체 생명들이 참나를 찾아 더불어 즐겁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내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반야(般若)의 밝은 지혜(智慧)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인개개(人人箇箇)가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나를 찾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참나는 모든 생명(生命)의 근원이며, 형상(形相)과 사상(思想)의 갈등을 넘어선 상호이해와 자유평등의 당체(當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一念)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정진(精進)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여, 안으로는 참나를 찾는 데 게으름이 없고, 밖으로는 남을 돕고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나를 찾지 않으면 마음의 번뇌와 갈등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고, 복은 짓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남을 도우면서 바르게 참선을 닦아 나가면, 마음의 온갖 번뇌와 갈등이 붙는 녹듯 사라져 다 같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남이 없게 될 것이니, 어찌 남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산승이 오늘 한마디 덧붙이건대,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인성교육(人性教育)의 일환으로 산승이 다음과 같은 오계(五戒) 사상(思想)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는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둘째는 부모에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요, 셋째는 친구를 사귀어 있어 서로 믿음, 사랑, 공경으로 대하는 것이요, 넷째는 말은 바 말에 있어 성실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계입니다. 모든 학생들, 나아가 만인이 이 같은 다섯 가지 계율(戒律)을 잘 받들어 행할 것 같으면 온 집안이 화목하고 온 인류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모든 불자와 국민, 온 인류가 참나를 찾는 수행으로, 마음에 밝은 지혜와 자비의 등을 밝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成群作隊隨他轉(성군작대수타전)이나
幾介男兒頂額眼(기개남아정액안)고
무한한 사람들이 저(부처님)를 따름이나
몇몇의 남아(男兒)가 정안(正眼)을 갖추었는가?

몸과 입과 뜻을 장엄합시다

성초 정사
진각종 종인



롭비니동산에 무우수(無憂樹) 꽃이 피던 날
싯달대자는 꽃비 맞으며 강탄(降澍)하셨습니다.
중생의 심전(心田)에 부처님 꽃 피게 하여
사바(娑婆)의 어둠을 햇살처럼 걷어내고
하늘 땅 가림 없이 정도세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은 쉬지 않고 초목을 살려내고
다시 본래 생명으로 돌아가듯이
부처님의 본래 성품도 중생의 번뇌 따라
거려(去來)가 자재합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중생이 아플 때에 부처님이 오십니다.
중생들의 신구(身口意)가 때와 장소 불문하고
불자(佛作) 진언(眞言) 심인(心印)으로 장엄하면
부처님의 탄생공덕 모든 중생에게 회향됩니다.

무진(無盡) 무여(無餘)의 중생계와 더불어
부처님의 강단을 봉축합니다.
중조님의 무진서원(無盡誓願) 받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는 행복과 평화의 동행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우주의 조화로운 기운을 받아 만물이 생동하는 환희로운 시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청정한 신심과 지극한 바람을 하나로 모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부처님은 사람 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람 사는 세상에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실천으로 사람 사는 세상에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모든 이웃 생명이 고뇌하고 있으니 내 마땅히 구제하리라.”는 부처님의 탄생선언에서 우리는 못 생명의 절대적으로 존엄하고 평등한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길을 떠나라. 모든 사람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진리를 말하라.”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진리에 의지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비행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을 새겨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름

에 응답으로 오십니다. 무명과 욕망의 세계에 지혜와 나눔으로, 대립과 갈등의 삶터에는 화해와 공존으로, 서로의 차이에는 차별과 배타가 아닌 존중과 상생의 말씀과 손길로 오십니다. 부처님오신날! 이웃생명이요, 한생명인 우리 인류는 부처님이 걸으신 길에 동행할 것을 발원합니다. 모든 이웃과 실천으로 동행하는 길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참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웃이 부처님의 지혜와 동행할 것을 발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는 관계의 동행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남과 북, 노와 사, 도시와 농촌, 전통과 현대가 대립과 경쟁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웃이요, 서로 다른 한 몸으로 평화와 행복의 세계로 가는 동행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이웃이 부처님의 자비보살행과 동행할 것을 발원합니다.

탐욕과 미혹의 어리석음 없애길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무우수 꽃향기 가득하고 계절 중 가장 아름다운 봄날인 오늘,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자 자비와 지혜의 무한광명인신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성스러운 날을 맞아 우리사회에 탐욕과 미혹의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오늘 밝힌 연등의 불빛처럼 따뜻하고 밝은 자비와 지혜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천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 부처님께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절대 평등하며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하나도 다름없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 하신 천상천하유아독존의 뜻은 부처님만이 홀로 우뚝이 높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 대지를 밟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각각 위없는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는 모두가 참 부처님이자 가장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만들어온 세상은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임을 잊고 전도된 가치관 속에서 진리를 외면한 채 탐욕과 성냄, 무지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본래 부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 비우면 부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두가 자리타의 큰 원력을 세워 세상을 너와 나, 선과 악으로 구분 짓는 분별심을 버리고 참 자비의 실천으로 상생과 공존,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서원합니다.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사부대중 모두와 함께 찬탄 공경드리며,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가피력으로 오늘 밝혀지는 연등 하나 하나가 지혜와 화합의 광명이 되길 기원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인연법 펼쳐야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

온 누리에 푸른 생명의 물결이 고동치고 가벼운 발걸음에는 기쁨이 번지고 있습니다. 함정하는 손끝마다 고마운 인연을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잠으로 아름다운 오월의 끝자락,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맞는 기쁨으로 가슴 설렙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시어 모든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선언하신 부처님, 스스로 자비의 삶을 살아가신 위대한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여기 사바에 오셨습니다. 또한 자비의 원력으로 불화와 갈등과 끝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해매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정 부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은 어둠이 밝음으

로,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해탈의 자유로 바뀌었으며 너와 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다.

부처님께서 언제나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 것을 강조 하셨습니다.

인연의 도리를 깨달아 ‘상대가 없이는 나도 없다’는 무아의 자리에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동체대비의 마음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인연법을 펼쳐야 합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겠다는 원력으로 생활과 수행을 하나로 하는 불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종단은 특히 주경야전의 수행풍도를 주장하여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고 기도하는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행과 나눔으로 참주인 거듭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가정에 복과 지혜 가득하여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고 이웃과 사회에 희망과 자비 가득하여 우리 모두가 분별 없는 참 세상의 주인 되시길 서원합니다.

2556년 전 석가모니부처님은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모두 분별 없는 진리요, 원만한 자비와 지혜이자 무한한 성품 그 자체임을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가르침으로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연기(緣起)적 평등성과 집착을 떨친 중도(中道)의 무분별성은 세간의 차별과 치우침을 경계하는 참회와 수행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회와 수행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보고 듣는 것을 비교하여 드러난 부족만을 채우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채움 속에 자신만이 남과 다르다는 전도몽상(顛倒夢想)의 어리석음을 담았습니다. 불자여러분,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을 새겨 그동안

우리의 삶이 보다 나은 것만 바라보았다면 다소 낮은 곳을 향해 자비(慈悲)심을 내어 덕(德)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시기와 질투, 원망의 질박함에 갇혀 있었다면 두 눈 감고 자신을 밝히는 지혜를 더하여 용기 있는 수행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자비, 그리고 용기 있는 수행과 함께 저마다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지혜로 나와 함께 우리를 생각하는 자비의 실천을 힘차게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행이 부족함을 수행으로 더하고 남침은 참회로 다스리는 불교의 현실이자 대중이 공감하는 참된 가치가 될 것입니다. 대승보살의 실천행인 동사섭(同事攝)으로 가족에서 사회로 동화(同和)되는 불자, 국가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불자, 분별의 세간 속에서 무분별의 가치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주시길 서원합니다.



욕망 억제하면 정도세상 이뤄져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



부처님께서 빛과 진리의 당체(當體)로 이 어두운 사바에 오신 뜻은 무명업식(無明業識)의 우매한 중생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이끌어 생명의 빛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고 행복한 현실의 삶을 위하여 청정한 지혜로 안락한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 우리사회는 물질과 정신을 분리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사고와 행동하고 있으며, 지식(知識)과 지혜(智慧)를 혼동(混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만능에 전도(顛倒)된 몽상(夢想)의 세상에 살면서, 정보의 홍수와 향락의 파도 속에서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지식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식을 맑히고 깨끗한 영혼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혜를 닦고자 하는 참된 수행자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닦는 수행으로 식이 많으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불성(佛性)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삼독(三毒)으로 인한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망의 마음은 번뇌(煩惱)만 일으키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여 불성은 사라지고, 악업만이 치성(熾盛)하게 되어 상호갈등을 유발하며, 마침내 불화와 고통으로 인한 혼탁한 세상이 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사고와 행동으로 인한 병통(病痛)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하기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오신 뜻과 그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각자의 욕망을 억제하고 수용하며 비우고 버리게 되면 심령(心靈)이 고요하게 되어 지혜가 열리며, 투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희망과 행복의 마음을 나누는 현실정도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준동함령(蠢動含靈)이 이고득락(離苦得樂)하고,
일체중생(一切衆生)이 공성불도(共成佛道)하기를 기원합니다.

푸른 새싹마다 빛나는 부처님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푸른 새싹마다 부처님 모습이 빛나니
오늘은 부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모든 이웃에게 예경하십시오.
곳곳마다 공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착한 일을 그치지 마십시오.
행복은 당신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 찬 자신을 보십시오. 남이 없습니다.
모두가 내 부모 내 형제며
나의 아들과 딸입니다.

모든 생명이 나의 삶에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천지는 한 뿌리요,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
아름답게 피어나는 저 꽃 뒤에는
무수한 인연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의 등불을 밝혀주시시오.

각박한 현실 자비로 보듬어

효강 정사
총지종 종정



우리 한국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날로 커지면서 온갖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이 주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진 자의 배움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구됩니다. 사회 제도로는 보완하기 어려운 각박한 현실을 가진 자의 자비와 사랑으로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화합이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한 원동력의 바탕은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불교 정신이어야 합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법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진정으로 실천해 나아가갈 때 행복으로 가득 찬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나누어 가지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하여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서십시오.